

# 사범대학 살림시다

이 종 민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



## 1. 사범대학은 필요없다?

**오** 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온통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서 통합과 평가라는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대학이 통합을 잘 추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학을 다녔고,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사범대학을 살리자는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글쓰기에 앞서서 구차스럽지만,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나에게 글쓰기는 한마디로 두려움이다. 어눌한 문장이 두렵고, 어설픈 주장이 두렵다. 읽는 이들의 비

판과 평가도 두렵다. 혹시라도 내가 쓴 글이 나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두렵다. 이러한 온갖 두려움을 무릅쓰고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읽는 이들이 하나의 평이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너그러운 관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사범대학은 왜 있는가? 흔히 목적 대학이라고 불리는 바와 같이, 사범대학은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사범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면, 교사 양성의 임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당연히 사범대학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임용에 필요한 수 이상의 교사 양성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학에는 고유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비판이 즐기차게 지적되었다. 여전히 옳은

주장이다. 사범대학의 교수들은 대부분 비 사범계 대학 출신이거나, 사범대학을 나왔더라도 전공은 응용교육 분야가 아니다. 간략히 말하면,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인문 과학 대학이나 자연과학 대학과 매우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교사 교육의 문제를 적확하게 지적하였다(『동아일보』, 1996. 10. 15). OECD가 한국의 교사 교육에 대하여 지적한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낡은 교육과정이었다. 사범대학이 안고 있는 낡은 교육과정 또는 유사한 교육과정은 사범대학이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범대학을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 사범대학을 나와도 교사가 될 수 없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다른 대학과 유사하다. 사범대학의 교수 중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그리 많지 않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범대학은 왜 필요한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사범대학의 정체가 비어 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2. 누가 사범대학을 만들었는가?

사범대학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사범대학을 세운 사람들을 찾아 따져보는 뜻이 아니다. 사범대학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국민들이 좋은 교사를 만

들자는 큰 뜻으로 사범대학을 추진하였다. 교육이 반듯하게 설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선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 간에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교육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필요하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좋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범대학은 필요했고, 현재에도 필요하다. 교육을 등한하게 여길 수 없었으므로, 교육 분야에 우수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사범대학은 수업료 면제라는 값싼 대학으로서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여러 국립 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신설되었다.

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다. 참신하게 배출된 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른바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과 가르치는 과목이 다른 교사들은 전공 과정과 예비 교사로서의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수료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들과 비교되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사범대학은 졸업 후의 교사 취업이 거의 보장되었다. 그러저러한 이유가 덧붙여지고, 유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범대학의 인기와 합격 점수는 높았다. 미래의 교육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이다.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사범대학은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더욱이 사범대학은 더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책무를 떠맡는 것이 당연하다. 교사 교육의 바람직

한 변화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면 사범대학은 필요하다.

### 3. 사범대학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사범대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범대학이 비뚤어지게 되고 꼬이게 된 지난 불과 10여 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범대학의 필요를 잘못 받아들이고, 사범대학이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며, 교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을 바르게 실행하지 않았다.

사범대학이 왜곡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국립 대학교에만 세워졌던 사범대학이 사립 대학교에 세워진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된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사립 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원칙을 생각해보자. 사범대학이 필요하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 사범대학의 출발이 사범대학이 겪게 될 시련의 시작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총체적으로 사범대학이 겪는 문제가 사립 사범대학에서 제기한 평등한 교사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소원에 의하여 가속화되었다.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사립 사범대학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사범대학이 겪는 존립 자체의 위협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립 사범대학 졸업생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립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은 지속되었다.

사범대학이 겪는 위기의 두번째 원인은 비사범계 대학 졸업생들에게 교사 자격증을 주는 이른바 교직 과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 양성 정책은 현재 개선되고 있고, 2~3년 이내에 교사 양성이 사범대학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대학이 있음에도 비사범계 대학에서 배출하는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즈음에서 매우 꺼내기 어려운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자격 미달의 교사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교육제도를 지적하였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격 미달의 교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격 미달의 교사를 양산하는 우리의 교육 체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오해를 부를 염려가 크다. 첫째는 어느 특정한 대학에서 자격 미달 교사가 나오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은 자격 있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반박도 가능하다. 교사 자격증을 주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격증이나 면허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왜 교사는 무시험 자격증을 가지는가? 교육부가 더욱 자신 있는 행정을 펼치려면, 교사 자격 시험을 통하여 유능한 교사를 기본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교사 자격 시험을 제창한다. 교사 자격 시험이 엉터리가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면,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임의대로 임

용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을 갖춘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이리저리하게 만들어지고, 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버려졌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호지부지되고 말았다.

끝으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사범대학에서 이른바 부전공을 장려하고 있고, 복수 전공을 허용하려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 한 사람이 영어와 독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과연 이러한 효율성이 진정한 효율성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두 과목을 모두 가르치는 교사가 과연 유능한 교사인가?

독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영어 교육을 부전공하면, 가산 점수를 주어 영어 교사로 우선 임용한다는 것이 현재의 교사 임용 방식이다. 이것이 어디 상식에나 맞는 생각인가? 부전공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사용하는 현행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에서는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학과나 기타 외국어학과의 영어 부전공을 장려하는 방식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으로 학문을 익힌다는 이른바 모든 대학생의 복수 전공이라는 방향은 무언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지적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현재 통합의 물줄기가 너무 거세어서 움츠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만간에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만큼은 자명하다. 비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 의자도 되고 침대도 되는 가구가 편리하기는 편리하다. 그

런데 그런 가구는 '접고 펴'의 부단한 노력을 (또는 만만치 않은 노동 비용을) 요구한다는 평범한 사실이 기억되었으면 싶다. 아울러 어찌 보면, 침대도 아니고 의자도 아닌 어정쩡한 가구가 될 수 있다. 집이 넓다면 또는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면, 따로 가구를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사범대학은 이리저리 비틀리고 굽어져 있다. 이러한 왜곡은 현실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굽혀서라도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변명이 귀에 들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왜곡을 행한 사람들도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위하여 헌신해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제자가 취업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에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로 다가 온다는 사실은 헤아려지지 않고 있다.

비사범대학들이 그토록 사범대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속뜻의 한 모퉁이에는 각자의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하려는 이기심이 들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범대학이 없다면, 교사 양성의 몫이 온전히 각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득이 생겨난다.

사범대학을 교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체제로 바꾸려는 어떠한 논의에 대하여도 공감할 수 없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교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으로 교육받은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경쟁과 효율의 원칙만을 익힌 다른 대학의 졸업자보다 정서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입각한 사범대학의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히고 싶다.

실지로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닫는 경우에만 이러한 왜곡은 없앨 수 있다.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이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 제도의 어떠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사를 끝이끝대로 길러내는 기관이 대학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바로 사범대학이다.

#### 4. 사범대학을 살리자

사범대학에 대하여 학문이 중복된다거나 현실적으로 교사 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미래의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에 버금간다. 교사 임용이 안 된다는 이유가 사범대학의 통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자의 수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취업이 가능한 수에 맞추어 대학생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범대학은 교사 양성의 목적성과 일반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목적이고, 후자는 대학 본연의 임무이다.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한다는 목적이 사범대학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범대학을 방치하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사범대학은 여타의 대학에서 교사를 통합

적으로 배출하였던 과거의 반성에 토대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교사가 될 인재를 발굴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차세대의 진정한 세계화의 일꾼을 길러낼 유능한 교사를 양성해내야 한다. 만약 지금 사범대학의 존립을 허문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사범대학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사범대학에 기초하지 않은 교육은 준비 없이 시작하는 실천과 같기 때문이다.

사범대학을 살리는 일에 앞서서 사범대학에 대하여 너무 과중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반성해야 한다. 비유를 들어 말하기로 한다.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중가요를 많이 부른다고 하여, 대학에서 대중음악을 공부하지는 않는다. 영어 회화가 중요하다고 하여, 대학에서 영어 회화만을 가르칠 수는 없다. 사범대학에 과다한 요구를 하고,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역시 오해나 반론의 여지가 있다. 사범대학에 대하여 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권장할 일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사범대학이 처한 현재의 처지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범대학 교수는 없을 것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더욱 개방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나아가 사범대학의 교수들은 중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협동을 이루어 나가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금 유치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저러한 잘못된 이유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

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다. 그러한 이유가 배제되는 학교는 직접 사범대학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추천을 의뢰하기도 한다.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사범대학은 좋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가 의문에 빠지고, 교사의 자리가 보다 특별한 위치가 되지 못한다면 교육을 맡은 일선의 교사들에게 낙담과 절망을 주기 쉽다.

사범대학을 혼돈에 빠뜨리는 현행의 교사 임용체제에 대하여 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뚫고 무조건 교사가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적어도 사범대학이 실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고 싶다.

차세대의 통일을 생각할 때 사범대학을 통합하려는 생각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시대에 북한의 교육은 누가 맡을 것인가? 아마도 북한의 교육을 새롭게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에는 유능한 교사가 많이 요구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껏 지켜온 '스승'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다른 대학들이 경쟁과 효율에 밀려나는 형편에 사범대학은 협동과 이해의 터전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 사범대학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범대학의 현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한 것 같다. 용감하게 확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만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을 운영하는 정책이나 체제는 쉽사리 고쳐질 희망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범대학의 운영에 관한 글쓴이의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 사범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마음'(the heart of a teacher)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요즘과 같은 세상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

---

이종민/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Syntax of Government Relations" 등이 있고, 저서로 『열려라 영문법』이 있다.